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n the Family Studie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李 貞 蓮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ung Yeon Lee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劉 永 珠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Hee University

Prof. : Young Ju Yoo

— 목 차 —

I. 역사적 고찰의 목적	4. 1950~현재 : 이론정립의 시기
II. 미국가족의 연구	1) 개념들의 정립
1. 1860~1890 : 사회적 진화론 시기	2) 이론의 형성
2. 1890~1920 : 사회적 개혁 시기	III. 한국가족의 연구
3. 1920~1950 : 과학적 연구 시기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Scientific studies on the family have been done since 1960, considerable amounts have been accumul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ut, it is a pity that research results from many other disciplines were not classified systematically nor exchanged each other.

This historical review includes results on the family studies in Americal and Korea, in the latter, 1191 literatures are analyzed into 7 major domains : marriage and family values, family relationships, family structure, family problems, family studies' trend, sex-roles, etc.

Based on this article, more desirable theory building in Korean families is required.

I. 역사적 고찰의 목적

한국에서 가정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립된 이래, 가족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1960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약 30년간 양적 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가정학의 다른

분야에 비교해 볼 때 가족연구는 초기부터 여러 학문 영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테면, 사회학, 법학, 심리학, 인류학, 가정학, 사회 복지학, 그리고 최근에는 의학에서도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가족 연구는 가정학내의 고유한 기초분야인 동시에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

다. 또한 연구주제도 초기에 비해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져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영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 학문별로 연구결과들이 분산된 채 종합 정리되지 않고, 서로 교류되지 않은 점은 한국 가족연구를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과거 연구 결과들을 연대별로 분류하고 요약하여 이를 근거로 가족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문헌 고찰을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가족연구의 전 영역에 걸쳐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대별로 고찰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 생각된다.

가족연구가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이나 연구의 한계상 미국의 가족연구만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가족 연구 논문들을 시대별로 세분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여 한국가족에 적합한 이론형성 및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미국 가족의 연구

가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세기 중엽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민속, 속담, 격언, 관습법 등에 표현되어 왔을 뿐이다. 가족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하려는 운동은 1859년 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Adams 1980: 6-7).

필자는 1980년 출저 가족관계학에서 HT Christensen의 것을 기초로 하여 50년 간격으로 4단계로 분류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가족연구의 전개과정을 30년 단위로 하여 연대별로 분류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¹⁾.

1. 1860~1890: 사회적 진화론 시기 (Social Darwinism)

Darwin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당대의 사회사상가들에게 사회형태와 제도도 같은 방식으로 발달할지 모른다는 암시를 제공하였다. 사회진화에 관심을 갖게된 이 시기는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 시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결혼과 가족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추론하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H Spencer의 종합철학(1860), JJ Bachofen의 모권론(1861), HS Maine의 고대법(1861), L Morgan의 고대사회(1877)등이 있었다(Zimmerman 1947). 그들의 연구들은 거시적 혹은 대규모적이고 비교문화적으로 사회발달에 일관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경험적, 객관적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닌 직관이나 불충분한 자료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Frederic Le Play만은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한 대규모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유럽의 노동자라는 저서를 1855년에 발표하였다. 자료수집은 면접과 참여관찰을 사용하여 조직적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가족의 재산계승과 사회적 기능이란 관점에서 가족의 형태를 가부장가족(the patriarchal family), 직계가족(stem family), 불안정 가족 혹은 핵가족(unstable or nuclear family)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그후 1875년에 가족의 조직(Organization of Family)을 집필하였는데 그는 가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한 최초의 가족사회학자로, 가족에 대한 질적(qualitative) 연구를 실시한 창시자가 되었다.

또한 사회유기체론 관점에서 가족을 다른 학자들이 있었는데 생물학적 유기체의 개념을 채용하

주1) HT Christensen(1964)은 50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1850년 이전을 전 연구기, 19C 전반을 사회적 진화론기, 19C 후반을 과학적 연구의 출현기, 1950년 이후를 체계적 이론 형성기로 분류하였고, BM Adams(1980)는 1860~1890년을 사회적 다윈주의의 시기, 1920~1950년을 과학적 연구시기, 1950~현재를 가족이론기로 분류하였으며, DL Homas와 JE Wilcox(1987)도 50년 간격으로 분류하여 가족 이론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여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Comte는 사회철학으로 부터 사회학을 분리시켰다. 이 관점은 후에 Spencer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가족이 일반 다른 사회집단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하나의 제도로써 사회와 관련을 갖고 기능한다고 보았다. Comte는 그의 저서에서 가족을 자연적인 성과 연령의 종속관계에 근거한 사회단위로써 종속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최재울 1988 : 18). 그후 Riel, Tonnis등도 이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연구의 초기에는 유럽의 사회사상가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가족과 사회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업적들은 이후의 미국 사회학의 형성기에 깊이 침투되고 또한 상호교류되어 가족사회학 분야를 정립하는데 지적근원이 되었다.

2. 1890~1920 : 사회적 개혁 시기 (Social Reform)

19C 말기에도 사회적 다아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저술이 계속 발간되는 한편²⁾, 사회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사회개혁의 욕구가 증대된 시기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빈곤, 어린이 노동, 사생아 문제, 그리고 다른 가족문제 등이 발생되었다. 사회개혁자들은 가족을 다양한 사회문제에 붕괴되기 쉬운 제도로 간주하고, 도덕적 개혁자들은 '가족의 구제는 사회자체의 구제이다' 라는 표어 아래 실증적인 행동을 제안하였다. 부모교육, 사회적 보호와 원조의 필요성등이 논의되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가부장적인 전통적 농촌가족"으로서 일차적으로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Howard 1981 : 11) 빅토리아시대로의 복귀를 선호하였다(Adams 1980 : 8; Howard 1981 : 6).

사회개혁이라는 개념하에 사회사업과 사회학은 같은 기반에서 시작되었으나 1900년 이후로는 양

자는 급속히 분리되었다. 가족을 붕괴되기 쉬운 사회적 단위로 간주한 사회개혁론자들과는 달리 미국의 초기 사회학자들(W Summer, L Ward, F Gidding 등)은 유럽의 사회적 다아원주의에 영향을 받아 가족을 적응력있고 진화하는 단위로 파악하고, 사회문제란 가족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signals)라고 보았다. 시카고대학의 사회학부는 1894년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를 창간하여 당시 사회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경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조사를 중시 여기는 Comte의 실증주의(positivism)의 방법론을 계승하여 학문으로써 사회와 가족을 연구하게 되었고 개혁 및 문제해결 지향적인 조사와 연구는 North Carolina 대학의 ER Groves등이 담당하였다(Thomas and Wilcox 1987 : 83; Adams 1980 : 8). 또한 1910년 가족문제에 대한 White House Conference가 개최된 이후 정부의 많은 재정적 후원도 얻게 되었다.

Komarovsky와 Waller(1945)는 1915~1926 간의 연구들을 고찰한 논문에서 이 시기는 가족 연구의 관심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대규모 탐색에서 보다 국한된 문제에 적용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이된 시기라고 보았다.

3. 1920~1950 : 과학적 연구 시기 (Scientific Study)

이 시기는 가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된 시기로 특징지워진다. 사회학은 내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심리학 관점을 정립하여 제반 사회과학 중에서 전문분야로서의 지위와 새로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대표적 사회심리학자는 W James, C Cooley, WI Thomas 그리고 F Znaniecki등이다.

C Cooley는 자아에 대한 W James의 개념³⁾을 사회에 적용하여 1차적 집단(primary group)을 주된 사회화 대행자(socializer)로 규정하고, 동료집

주2) 대표적 예로는 E Westermarck의 결혼의 역사(1981), EB Tyler의 19세기의 모권 가족제도(1896), F Engels의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1902), A Bebel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1902), GE Howard의 모계제도의 역사(1904) 그리고 R Briffault의 The Mothers(1927)등이 있었다(Zimmerman 1947).

단, 이웃, 가족을 중요한 1차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Chicago 대학의 E Burgess였다. 그는 상호작용론과 사회심리학의 발달을 결합시켜 가족을 단순한 1차적 집단의 형태로 보고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인성의 결합체'로 정의하였으며(Mogey 1981), 가족연구에서 미시적인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촉진시켰다. 배우자 선택요인, 상호작용의 유형, 이혼과 해체, 노인의 지위등에 대해 연구하여 가족과 사회화의 외적 관계보다는 가족상호작용의 내적인 관계에 더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관점은 1955년까지 미국 사회학의 업적을 지배하게 되었다⁴⁾. 특히 LM Terman의 결혼행복의 심리적인 요인(1938), EW Burgess와 LS Cottrell의 결혼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예측(1939)등의 예측 연구들은 과학적 조사의 현저한 업적이 되었다. 한편 가족연구의 역사적 접근방법도 계속 이어졌으나 그 이전에 비해 진화론적 추세로 물고가지 않고 보다 문헌적 자료와 기록에 충실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Christensen 1964 : 9).

가족연구는 1924년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Meetings에서 가족부를 설정함으로써 더욱 합법화되었고, 또한 같은 해에 ER Groves는 Boston대학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여(Mogey 1981), 사회학으로 부터 가족사회학이 독립된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38년에는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NCFR)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학술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Marriage and Family Living이

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연구와 이론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유럽의 연구들은 미국 가족연구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Piaget(1926, 1929, 1932), Freud(1938)의 저서는 아동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조사와 이론에 영향을 주었고 이시기에 증대해가는 가족생활교육 운동(familylife education movement)에 흡수되었다(Thomas와 Wilcox 1987 : 84).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은 가족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기에 대한 가족의 적응이 Angell(1936), Cavan과 Ranck(1938) 그리고 Morgan(1939)에 의해 연구되었고, LePlay의 영향을 받은 Zimmerman은 1935년 Frampton과 함께 그와 유사한 조사를 미국에서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시화된 가족체계보다는 상호의존적인 농촌가족 체계가 대공황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Thomas와 Wilcox 1987 : 84).

또한 1940년대 부터는 Merton의 중범위 이론⁵⁾의 영향을 받아 가족연구에서도 이론과 실제조사 간의 일치를 강조하게 되었고, 1949년 250개 사회에 걸친 횡단적 조사에서 가족구조의 보편성을 입증하려는 Murdock의 업적이 있는 이후 여러시대와 문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1950~현재 : 이론정립의 시기 (Attention to Family Theory)

HT Christensen(1964)은 이 시기를 체계적 이

주3) W James의 자아의 유형론 중 널리 인정 받은 <사회적 자아>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후 W James, C Cooley, 그리고 J Dewey의 관념을 종합하여 H Mead는 정신, 자아,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호작용론을 수립하였다(김진균 외역 1982 : 364~375 참고).

주4) Howard(1981)의 견해에 의하면 가족연구는 1940년대에는 사회학중에서 제 2위의 세력을 차지하는 분야였다고 한다. 1950~1960년대에는 다소 약해졌으나 절대수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는 보았다.

주5) 중범위 이론은 거대한 이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추상성을 지니며 명확히 정의되고 조작화된 개념들을 사용하여 제한된 범위의 현상들간의 변수적 관계의 진술로 구체화된 이론으로써 이 방법에 의하면 이론을 경험적 현상범위에 직결되고 경험적 조사가 이론을 뒷받침함으로써 개념과 명제들이 명료화, 정교화되어 명확성이 커지고 따라서 이론적 일반화가 가능해진다고 본다(Burr등 1979; 김진균 외역 1982 참고).

론형성기(the period of systematic theory building)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명칭은 1980년대 까지도 적합한 것 같다. 결혼, 가족의 문헌목록에 의하면 영어 간행물에 국한해 볼 때 논문저서의 전체의 2%가 1900~1928년에, 6%가 1929~1940년에, 67%가 1941~1971년에 그리고 25%가 1972~1976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즉 간행물의 약 90%가 1940~1976년에 간행되었고 약 2,300편에 이르렀다⁶⁾. 학자들은 연구논문 결과들을 요약하고⁷⁾ 체계적으로 결과들을 누적해 나가기 위해 개념틀(framework)을 정립하고, 편찬작업을 통해 이론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1950년 이후의 가족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그간의 연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였다.

WL Ludlow, A Syllabus and Bibliograph of Marriage and Family, 1951

FN Foote, LS Cottrell, Ident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1955

Reuben Hill,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Behavior, 1958

W Ehrmann, A Review of Family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56

RF Winch, Marriage & Family Research, 1957

EZ Bager, A Review of Family Research, 1958. Marriage and Family, 1959

JA Walters, A Review of Family Research, 1959.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62

IF Nye & AE Bayer, Some Recent Trends in Family Research, 1963.

등의 문헌고찰, 연구등이다.

둘째 : 민간, 대학, 학회, 정부에 의한 가족연구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가족에 관한 이론과 연구방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표적 기관과 재단들은 다음과 같다.

1. Ernest W. Burgess Fund
2. Maccormick Memorial Fund
3. Minesota Family Study Center
4. Community and Family Study Center
5. Section on the Family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6. White House Conference
7.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셋째 : 가족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소집단 연구의 증가,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고도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쓰여진 중요한 종속변수는 Date, 구애, 배우자선택, 결혼의 만족, 부부의 역할, 친자관계이며 한편 중요한 독립변수로는 피조사자의 성, 사회계층, 연령, 종교, 학력등을 택하였다.

넷째 : 체계적인 이론구성상의 발전을 보였다.

1. 가족연구자의 자기반성
2. 조사 연구제목에 대한 목록작성
3. 조사연구결과의 종합적 분석의 시도
4. 이론적 구조의 통일화 등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인 개념들의 정립과 이론의 형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개념들의 정립

주된 개념들을 정립하는 과정은 Hill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도적, 상호작용론적, 구조기능적, 상황적, 가정학적, 학습론적, 그리고 발달적 접근이라고 명명한 7가지 개념적 접근을 정립하였다(1957 : 90)

주6) 가족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많이 발표된 학술지로는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American Anthropologis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그리고 Social Forces등이었다 (Christensen 1964 : 13).

주7) 1950년 이래로 결혼과 가족분야의 문헌들을 시기별로 고찰하는 문헌목록 조사가 많이 행해졌다. Ludlow(1951)를 시초로 하여 Foote와 Cottrell(1955)은 1945~1954의 것을, Hill(1958)은 1945~1956의 약 30개국의 주요 가족문헌을 그리고 Th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는 1954년 부터 거의 매년 1년 동안의 연구목록 및 연구추세 그리고 성과들을 수록하였다(HT Christensen 1964).

8) 3년 후에 Hill과 Hansen(1960)은 그중 학습론적 접근과 가정학적 접근을 제외한 5가지 관점이 가족연구의 주된 관점임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64년에는 HT Christensen이 Han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를 1966년에는 FI Nye와 FM Berardo가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Analysis를 발표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이론 경향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는데 기여하였다.

1960년대의 연구를 고찰한 Broderick(1971: 3)은 이상의 개념들 외에 3가지의 minor framework로서 균형이론, 게임이론, 교환이론을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써 일반적 체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에 Holman과 Burr(1980: 9)는 주된 접근법으로서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 체계이론등의 세가지를 제안하고 minor theory로서 갈등이론, 행동주의, 발달이론, 생태이론, 현상학등의 5가지를 그리고 주변적 이론(peripheral theory)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이론, 정신분석이론, 균형이론, 장이론, 학습이론, 상황론적 접근, 관계 거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제도적 접근, 그리고 구조-기능론 등을 제시하였다.

Klein(1977) 등은 가족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접근법은 상징적 상호작용⁹⁾이라고 하였고, R Turner와 그의 동료들(1974, 1976)도 역할속성과 자아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Symbolic Interaction 이라는 저널도 간행되어 상호작용 이론 내용면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에 비해 교환이론은 70년대에 와서 급격히 사용되어 가족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교환이론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다수 나오게 되었고(Edwards 1969; Huesmann과 Levinger 1976; Levinger 1976; Scanzoni와 Scanzoni 1976; Adous

1977; Osmond 1978), 교환론적 접근을 적절히 사용한 경험적 연구도 많이 나왔다(Scanzoni 1970; Edwards와 Bradburger 1973; Acock와 Bengtson 1978). 1970년대 동안에 교환이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지적 노력이 있었는데 Ekeh(1974)는 단지 교환정이론보다는 선택과 교환이론이라고 확대시킴으로써 교환의 동기에 보다 강조를 두었다(Holman과 Burr 1980: 7).

체계이론은 1960년대에 몇몇 학자들은 가족체계 뿐 아니라 다른 체계에도 유용한 일반화를 제공하는 접근법으로 제안해 왔는데, 1970년대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Kantor와 Lehr(1975)는 체계이론이 과거에 신중하게 연구되지 않은 많은 가족영역의 부분들을 기술하는데 유용함을 입증하였고, Satir(1972)는 실제 장면에서 체계적 통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Watzlawick와 동료들(1967, 1974)은 매우 유용한 새로운 개념화와 이론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체계이론은 '서술적 이론'(Kantor와 Lehr, 1975)에 머물러 있다(Holman과 Burr, 1980).

이상의 여러 개념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어떻게 생성, 지속, 소멸되었는가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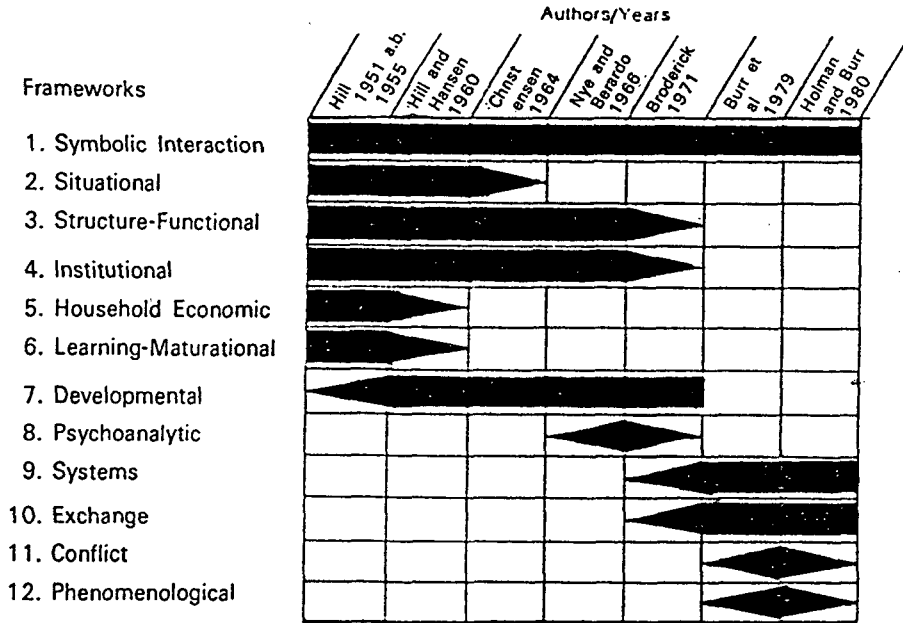
2) 이론의 형성

1950년대 이후는 가족연구에서 이론적 발달을 위한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었다(Howard 1975: 183). R Hill과 D Hansen(1960)은 다양한 접근방법과 개념들로 인해 기존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산재되어 있는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편찬하는작업을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가족연구의 역사상 하나의 큰 수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Burr와 그의 동료들이 이론형성의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여 경험적,

주8) 그들은 학습-성숙론적 접근(learning-maturational) (초기에는 학습-발달적(learning-developmental) 관점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 연구논문은 많으나 가족이 아닌 개인에 초점을 둔 심리학자들의 것이 많고, 또한 가정학적 접근(the household economic approach)은 연구 양이 충분치 않아 제외시켰다고 한다.

주9) H Mead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H Blumer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의 M Kuhn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오아 학파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 두학파간의 논쟁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KEY : = Framework seen as beginning to be a major framework by the author
 = Framework seen as failing to generate sufficient research to qualify as a major framework of otherwise not very important in the study of the family by the author.

Fig. 1. Major conceptual frameworks presented in family research and theory publications from 1950 to 1980.

source : DL Thomas와 JE Wilcox(1987 : 87)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문들을 체계화하고 명제화한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 II를 완성한 것이다. 제1권은 귀납적인 이론형성을 다루고, 제2권은 일반이론의 적용을 다루었다. 아직 일반화하거나 인과관계를 정립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들의 업적은 이론정립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토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⁰⁾.

이러한 선구적 노력에 의해 중범위 이론을 형성

하는 업적이 계속 이루어 졌다. 그중 비교적 정교하게 구성된 중범위 가족이론으로서 Holman과 Burr(1980 : 11)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Adams 1979), 가족과 스트레스(Burr 1983 : Hansen과 Johnson 1979), 결혼의 질(Lewis와 Spanier 1979)등을 들 수 있고, 아직 새롭고, 초기 단계인 것으로는 의사소통(Raush등 1979), 세대간 유대(Troll과 Bengtson 1979), 형제관계(Schvaneveldt와 Ihinger 1979), 출산(Cogswell과 Sussman 1979)등이 언급

주10) 이외에도 70년대 이후에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도전하는 비판적 관점으로서는 조은(1986)은 마르크스스트 관점, 페미니스트 관점, 프랑크푸르트 학파, 급진 정신분석학파 등을 언급하고 있다.

주11) Burr등(1979)의 저서에 대한 비판적인 학자들은 J Huber와 G Spitze(1988 : 426)에 의하면 Lee(1980), Clayton과 Bokemeier(1980), Otto(1979), Gelles(1980), Scanzoni와 Fox(1980), Steinmetz(1979), Holman과 Burr(1980)등이다.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연구가 이론적 정교화를 획득했으며, “70년대는 가족연구가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 (Holman과 Burr 1980 : 7)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연구를 학제적 연구영역으로 독립시켜 “가족학”(Famlolgy)으로 정립하려는 주장이 일어났다(Burr와 Leigh 1983).

한편, 주제별 연구추세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50년대 까지는 주로 가족 또는 개인의 적응, 만족도 등에 초점을 둔 반면, 60년대에는 가족연구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또한 60년대에 비해 70년대에는 혼전 성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진전을 보였고 이성교제 분야는 격감한 반면, 구애 과정에 대한 연구는 관심이 증대되었고, 사랑에 관한 연구가 다시 재개되었다. 결혼의 질은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그밖에 새로 나타난 주제로는 성역할, 10대 부모, 가족 스트레스 대응 및 가족 폭력 등으로서 연구대상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노년기 가족과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한 추세를 나타내었다(Berardo 1981 : 1-19).

또한 70년대에 시작되어 80년대에 주로 진행된 주제로는 가족사회학 분야에서는 이혼과 재혼, 비전통적 2인관계(dyads),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 등으로서 전통적 결혼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역들, 즉 가족치료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론의 소개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상담 및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III. 한국 가족의 연구

한국가족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자와 일본학자들

에 의하여 8. 15해방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¹²⁾. 당시의 연구는 가족에 대한 제도사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한남제 1984 : 46). 그러나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방후 1949년 김두헌의 조선가족 제도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법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가정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가족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960년 부터 1989년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남제(1984)에 의해 행해진 바 있으나 주로 사회학분야의 논문 217편을 분석하여 가정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아동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의 연구업적들이 제외되었으므로 가족에 관한 논문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1960년 이후 약 30년간에 걸쳐 가족에 관해 발표된 연구논문 1191편을 총망라하여 편의상 5년간격으로 분류하였다¹³⁾(표 1 참조).

연구업적들은 크게 결혼 및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구조, 가족문제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작은 주제별로 세분하였으며 그밖에 가족연구경향, 성역할, 기타 등의 영역을 포함시켰다. 이 중 가족관계 분야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547편, 46.0%), 그 다음이 가족구조분야(290편, 24.4%), 가족문제분야(140편, 11.8%) 결혼 및 가족가치관분야(117편, 9.8%)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연대별로 가족연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1964년

1959년에 ‘대한 가정학회지’가 창간되면서 가정학에서 의.식.주 영역과 병행하여 가족관계와 아동

주12) 해방전(1900~1945)에 이루어진 연구의 문헌록은 최재석(1983)을 참조할 것

주14) 논문은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가정학 관련 학회지, 대학논문집 그리고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모두 분석자료로 하였다. 동일내용의 연구가 두군데 이상에 발표된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편으로 취급하였고, 국외에 발표된 논문도 상당수 있으리라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단행본은 그전에 발표된 논문을 묶어 발행한 경우가 많아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 논문이 두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었을 경우, 편의상 보다 비중이 큰 주제분야에 수록하였다. 최선을 다하여 수집하였으나 가족복지 및 정책분야와 여성학 관련분야는 다루지 못하였고, 최근까지 발표된 석사논문 중 누락된 논문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1. 연구주제별로 본 연도별 가족연구 논문발표 현황

연구주제별		연도별	1960- 1964	1965- 1969	1970- 1974	1975- 1979	1980- 1984	1985- 1989	계
결혼 및 가족 가치관	결혼, 배우자 선택		0	4	3	12	18	6	43
	가족 가치관		3	6	10	15	15	25	74
	소 계		3	10	13	27	33	31	117
가족 관계	부 부 관 계	전반적 부부관계	0	0	0	1	2	2	5
		적응	0	0	3	2	5	8	18
		만족도	0	0	1	2	15	29	47
		권력, 의사결정	0	3	2	9	6	12	32
		의사소통	0	0	1	0	11	8	20
		불안정성	0	0	0	1	0	7	8
		소 계		0	3	7	15	39	66
	부모자녀관계	3	10	42	29	81	97	262	
	부모 성인 자녀관계	1	3	4	7	11	16	42	
	형제 자매관계	0	0	1	0	1	1	3	
	조부모 손자녀관계	0	1	1	2	1	3	8	
	장 노년기 적응	0	1	4	7	30	32	74	
	전반적 가족관계	1	4	8	2	3	10	28	
소 계		5	22	67	62	166	225	547	
가족 구조	가족제도	3	8	19	24	28	8	90	
	친족, 동족	4	8	6	13	14	16	61	
	가족법	6	5	9	7	4	4	35	
	가족유형	5	1	2	4	7	3	22	
	가족역할	0	2	6	18	20	14	60	
	가족기능	1	1	2	3	5	1	13	
	가족주기	1	0	1	1	4	3	10	
소 계		20	25	45	70	82	49	291	
가족 문제	가족갈등	2	0	8	8	7	25	50	
	가족폭력	0	0	0	0	4	15	19	
	이혼	1	2	1	3	8	7	22	
	가족치료	0	0	0	4	8	8	20	
	가족계획	0	4	9	5	6	5	29	
소 계		3	6	18	20	33	60	140	
기타	가족연구 경향	0	1	3	6	6	8	24	
	성역할	0	0	2	3	25	31	61	
	기타	1	2	2	1	0	5	11	
전체합계			32	66	150	189	345	409	1,191

*자세한 논문목록은 앞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된 이후¹⁴⁾, 1962년에는 '아세아 여성연구'가 창간되어 여러분야의 학자들에 의한 가족연구가 발표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총 32편에 달하였으며, 연구주제별로 보면 결혼 및 가족 가치관 3편, 가족관계 5편, 가족구조 20편, 가족문제 3편, 기타 1편으로 가족구조 분야의 연구가 보다 우세하였다.

단일 분야로는 가족법 연구 분야가 6편으로 가장 많아 법학자들의 연구가 선도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가족법 분야만이 과거가족에 대한 사적고찰을 하였고, 그 밖에 다른 분야는 주로 현대 가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가족과 외국가족과의 비교연구가 진행된 점(김두헌 1962; 최재석 1964)에서 가족연구의 초기부터 비교문화적 관점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965~1969년

이 시기는 가정대학이 설립되어 기존의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로부터 가정관리학과, 아동학과 등이 독립되었고 1964년에 '한국사회학'이 창간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가족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총 66편에 달하여 그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 거의 두 배의 증가를 보였고 연구의 범위도 보다 확대되어 결혼 및 배우자의 선택(이효재 1968; 김봉소 1969; 김혜향 1969; 송대현 1969), 부부관계(문승규 1967; 최재석 1969a, 1969b), 조부모 손자녀관계(박미향 1966), 장노년기 적응(서영숙 1969) 가족역할(민성희 1969; 최재석 1969), 가족계획(박호강 1965; 차영숙 1967; 안성훈 1968) 가족연구경향(박병욱 1969) 등의 분야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발표된 논문수를 보면 결혼 및 가족가치관 10편, 가족관계 22편, 가족구조 25편, 가족문제 6편, 가족연구 경향 2편, 기타 1편으로 가족구조, 결

혼 및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영역도 많이 증가되어 1960년대 전기에 비해 1960년대 후기는 사회학자, 가정학자에 의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단일분야로는 부모자녀관계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제도(8편), 친족·동족, 가족가치관(6편)의 순이었다. 그리고 부부관계 영역에서는 권력·의사결정 분야가 제일 먼저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가족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960~1964년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었고 가족이론에 입각한 개념들이나 가설 등이 설정되지 않은 탐색적 연구에 속하였다.

3. 1970~1974년

이 시기는 사범대학 및 가정대학에 대학원과정 이 설립된 시기로서 가족연구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개선을 위한 토대로 마련한 시기였다. 발표된 논문수는 총 150편으로, 거의 모든 분야가 이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 13편, 가족관계 67편, 가족구조 45편, 가족문제 18편, 가족연구 경향 3편, 성역할 2편, 기타 2편으로서 가족관계 영역의 논문수가 가장 많아 학자들의 관심이 가족구조 분야 보다는 내적인 상호작용을 다룬 가족관계 분야로 전이되는 추세를 보였다.

새로 나타난 연구주제로는 부부관계 중 적응(최신덕 1973; 허필숙 최의순 1973; 유은희 1974), 만족도(이차숙 1974), 의사소통(이근후 이동원 1973), 형제자매관계(김양순 1973), 성역할(이금옥 1974; 이예영 1974) 등이었다.

또한, 단일주제로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분야는 부모자녀 관계로서 총 42편에 달하였는데 그 중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또는 훈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25편(약 61%)으로 주된 경향이었다. 그 밖에도 가족제도, 가족법, 가족역할, 가족갈등, 가족계획 등이

주14) 1960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6편 정도(변태섭 1958, 1959; 주정일 1959; 최이순 1959; 이순일 1959; 최재석 1959) 등이 있다.

1960년대에 이어 1970년 전기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내용면을 살펴보면, 60년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 채택, 가설설정, 척도의 개발 등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도 역시 부모-자녀관계 분야가 앞선 추세를 보여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1970), 김재은의 '가정 환경 검사'(1974), 이원영의 '양육태도 척도'(1973) 등이 작성되었다.

4. 1975~1979년

발표된 논문수는 총 190편이었고 결혼 및 가족 가치관 27편, 가족관계 62편, 가족구조 71편, 가족문제 20편, 그 밖의 연구 10편이었고 이 시기는 대학의 양적규모가 커지고 대학생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마다 교수들의 충원이 요구되는 시기로서 가족연구 분야에서도 국내외에서 전문적 교수들이 확충되었으며, 1970년 전기에 비해 더욱 질적 수준을 갖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새로 나타난 연구주제로는 전반적 부부관계(김혜숙 1977), 가족치료(김경희 1977; 박춘우 1978; 한인영 1979; 박성수 1979) 등이었고 이전에 다른 분야들이 계속 추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부자녀관계분야, 가정생활 및 만족분야, 가족계획 분야 등은 감소되었고, 그 반면 결혼 및 배우자 선택, 권력, 의사결정 분야, 친족, 동족 분야 가족역할 분야 등은 주된 연구영역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부모자녀관계 분야는 29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가족제도 24편, 가족역할 18편 등의 순이었다. 부모 자녀관계 분야는 1970년대 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주된 경향을 이루나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가족제도 분야는 최재석, 이광규의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과거 가족의 이혼, 상속, 양자제도 등이 연구되었으며, 가족역할 분야는 이은식(1975, 1976a, 1976b), 김재은, 김혜선(1975), 박부진(1975) 등에 의한 역할구조의 실태조사 연구와 직업 주부의 역할수행 조사연구(이동원, 1976; 유영주,

1977; 박진숙, 1978) 등이 주된 관심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업적을 고찰하는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영주(1978)의 '한국가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일고찰'을 들 수 있다.

5. 1980~1984년

이 시기는 1970~1974년의 제 1차 양적 증가기에 이어 제 2차 양적 증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기에 비해 약 1.8배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부부관계 분야와 가족문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것은 아마도 컴퓨터에 의한 연구방법의 개선 및 석사학위 배출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80년에 '아동학회지'가 1983년에 '한국가정관리 학회지'가 창간되어 가족 연구에 활성화 역할을 하였다. 총 발표논문수는 345편에 이르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 분야 33편, 가족관계 분야 166편, 가족구조 분야 82편, 가족문제 분야 33편, 그외 분야가 31편으로서 가족관계 분야가 주도적 영역으로 확립되었다.

단일 주제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 영역중 권력, 의사결정 분야는 감소된 반면, 적응 만족도, 의사소통은 1980년에 들어서 지배적인 주제로 부각되었고 부모자녀관계는 발표된 논문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와 아울러 연구 범위도 보다 확장되었다. 즉,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논문들(고성혜 1982, 1983; 권이종 1983; 위영희 1983; 안은자 1984; 양장애 198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장근화 1980; 이순형 1982; 김진숙 1983; 석현양 1983; 윤정명 1983) 그리고 부모의 관점에서 아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또는 훈육태도 연구들(심수현 1981; 오성심 이승중 1982; 강완숙 1983)이 그것인데 1970년대 후기에 비해 더욱 강조된 주제가 되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는 장·노년기 적응에 대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5~1979년에는 7편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는 30편이나 발표되었다. 성역할 분야-특히, 자녀

의 성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도 현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각 분야별로 연구업적의 정리작업이 계속되어 김태현(1980)은 노년학분야를, 김혜선(1982)은 결혼만족도분야를, 김양연(1984)은 부모-자녀관계 분야를, 그리고 옥선화(1984)는 역할구조분야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가정학회(1984)는 1977~1984년간의 아동과 가족에 관한 국내외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경향을 소개한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를 발간하였다.

6. 1985~1989년

이 시기는 1980년대 전기의 특징이 보다 강화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제도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다른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1980년대 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주제들이 계속되면서 더욱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발표된 논문수는 총 408편으로서 약 30년간의 기간 중 발표된 논문수의 약 34.4%를 차지 하는 것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결혼 및 가족가치관 31편, 가족관계 225편, 가족구조 48편, 가족문제 60편, 그 밖의 연구가 44편으로 이 시기에도 가족관계 분야가 주된 연구 영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족문제로 1985년 후기에는 가족구조보다 가족갈등, 가족폭력등에 관한 가족문제 연구가 더 많이 발표되었다. 단일 주제별로는 부모자녀관계가 97편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가치관, 부부관계 만족도, 장노년기 적응, 가족 갈등 그리고 성역할등의 분야가 20편이 넘게 발표되었다. 결혼, 배우자 선택, 가족제도, 가족유형, 가족기능, 가족계획 등의 분야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새로 부각된 변화를 고찰해 보면 부모-성인 자녀관계 만족도 연구는 보다 개선되어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되어 연구되었으며 결혼의 불안정성연구(박찬미 1985; 이동원 1987; 윤양현 1987; 최원실 1987; 김미숙 1989; 김선영 1989; 김태현, 이성희 1989), 중년기 가족을 다룬 연구

(구향숙 1985; 전명숙 1985; 이강운 1987; 김명자 1986, 1989), 가족스트레스 요인 및 대응 방법에 관한 연구(권경희 1985; 배종열 1985; 장병옥 1985; 박난희 1987; 이광주 1988; 전세경 1988; 최동숙 1989), 그리고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외에도 친족, 동족 연구중 친족 유대관계망에 관한 연구도 1984년에 2편이 발표된 이후 이 시기에도 4편(유가효 1985; 이영희 1987; 이경희 1988; 김경원 1989)이 발표되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정우, 장병옥의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1987), 김순옥의 가족의사소통 연구에 관한 고찰(1989) 등, 한국가족에 관한 영역별 문헌고찰이 계속 진행되어 이루어져 가족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가족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대의 추이와 더불어 어떠한 가족연구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미국, 한국의 가족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약 1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가족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주제와 연구영역도 대폭 넓어져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의 가족연구도 30년이 경과된 현재는 과거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자성적 평가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BN Adams(1988: 12-13)는 가족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연구영역도 초기보다 훨씬 넓어졌음에도 가족학의 지위가 높지 못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즉, 첫째, 주로 다루는 변인인 상황(condition), 행동, 태도, 지각(perception) 등이 과학적 조건상 정확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softness), 둘째, 가족연구에 종사하는 학생, 학자들이 어느 특정가치를 선호하고(예를 들면, 보수주의), 여러 형태의 현상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대하지 못하다는 것, 셋째, 가족과 다른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논할 때 가족은 항상 외부변화에 영

향을 받는 수동적, 종속변인으로만 다룬다는 것
등이다.

J Huber와 G Spitze(1988)는 가족이론에서는
미시적인 사회심리적 개념들을 특정시기와 장소에
국한된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가족이론 중 일반
이론(general theory)이 될 수 있는 분야로서 1)성
의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를 변인으로 다루
는 연구와 2)life-course적 관점을 다루는 연구등
을 언급하였다.

한편, 한국의 가족연구는 다음 몇가지 점이 결
여되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가족연구를 구조를 중
요시 여기는 거시적 관점과 과정을 중시하는 미시
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때, 한국의 가족
연구는 그 어느 방면에도 철저히 조사, 연구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개념의 정의, 측정, 연구
대상등이 학자마다 상이하며 누적된 결과를 통하
여 이론의 일반화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
다. 셋째, 미국의 경우 1938년 NCFR이 조직되고,
일본의 경우 1955년 가족문제 연구회, 1957년에
가족연구부회를 결성하여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종합적 과업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공
동연구도 시행한 반면, 한국은 아직 그러한 방면
에서 이제 시발점에서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러 방면의 가족연구 학자
들간에 공동연구와 워크샵을 통해 이러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산재된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한국 가족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
면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진균 외 (역) : 사회학 이론의 구조. 한길사, 1982. JH Turner :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1978 : The Dorsey Press. 한길사, 1982
- 2) 대한가정학회(편) :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 신광출판사, 1984
- 3) 조은 :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지 제18집, 1984

- 4) 최재율 : 가족사회학. 전남대출판부, 1988
- 5) 한남제 :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회지 제20집, 1986
- 6) Adams BN :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Chicago, 1980
- 7) Adams, BN : *Fifty years of family research : What does it me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8 : 5-7
- 8) Berardo FM : *Decade preview : Some trends and directions for family research and theory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80
- 9) Broderick CB : *Beyond the five conceptual frameworks : A decade of development in famil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139-159, 1971
- 10)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 :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I)*, New York : Free Press, 1979
- 11)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 :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II)*, New York : Free Press, 1979
- 12) Burr WR & Leigh GK : *Famology : A New disciplin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 467-80, 1983
- 13) Christensen HT :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ed.)*, Chicago : Rand McNally, 1964.
- 14) Holman TB & Burr WR : *Beyond the beyond : The growth of families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 729-741, 1980
- 15) Howard RL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family sociology, 1865-1940*, ed. by J Moge.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81
- 16) Huber J & Spitze G : *Trends in family sociology.* In *Handbook of sociology*. Smelser NJ (ed), Sage Publishing, 1988

- 17) Komarovsky M & Waller W : *Studies of the famil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 : 443-451, 1945
- 18) Murdock GP : *Social structure. New York : Macmillan, 1949*
- 19) Nye FI & Berardo F :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 Macmillan, 1966*
- 20) Thomas DL & Wilcox JE : *The Rise of family theory,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Sussman MB & Steinmetz SK (eds), 81-101, 1987*